

EU 연구혁신 주간 동향 보고

<24.10.10, 한-EU연구협력센터>

○ 한국-EU, 신기술 표준화 분야 양해각서 체결(10.3)

- EU 집행위가 지원하는 INSTAR 프로젝트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(TTA)는 지난 9월 한-EU 디지털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단계로 디지털 표준화 우선순위에 대한 국제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것임을 발표
- ※ INSTAR 프로젝트: 호라이즌 유럽 필라2 클러스터4 프로젝트로 2024년 1월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진행, EU에서 약 150만 유로를 지원하며, 프라운호퍼, Fortiss, 델프트 공대 등 10개의 산업 및 연구 파트너로 구성된 컨소시엄
- 양측은 올해 말까지 한-EU 국제 태스크포스(ITF)를 구성할 계획이며, MoU는 5G/6G, 인공지능, 사이버보안/디지털ID, 데이터 기술, IoT, 양자 기술 등에서 양측의 표준화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공동 표준화 로드맵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
- ※ MoU 서명식에는 INSTAR 코디네이터 Tanya Suarez, IoT 및 엣지 컴퓨팅 혁신 연합 AIOTI 및 INSTAR 국제 태스크포스 리더 Damir Filipovic, Trialog의 Antonio Kung,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손승현 회장 등이 참석

○ 유럽연결프로젝트(CEF), 빠르고 안전한 디지털 연결 네트워크에 8억 6,500만 유로(10.9)

- 집행위는 유럽연결프로젝트(CEF)의 디지털 부문에 대한 두 번째 워크 프로그램을 채택, 유럽의 디지털 연결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EU 자금 지원 프로젝트에 2027년까지 약 8억 6,500만 유로의 자금을 배정
- CEF Digital은 공공 및 민간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EU의 공통 관심사인 연결 프로젝트와 EU 전역에 기가비트 및 5G 네트워크 같은 안전하고 보안이 유지되며, 지속가능한 고성능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기여
- 이번 워크프로그램은 중요한 지정학적 및 지경제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 디지털 생태계의 경쟁력을 자극하는 것을 도우며, 특히, 해저 케이블과 같은 디지털 백본 네트워크의 용량, 보안 및 복원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

○ (기타) ▲MSCA 지원 연구자 2024년도 노벨 화학상 수상(10.9) ▲싱가포르의 호라이즌 유럽 가입을 두고 정치적 상황과 인권 문제에 대한 유럽연합의 평가 상충(10.3), ▲유럽 연구기관, EU 집행위에 마리퀴리 예산 증대 요구(10.3) ▲EU 연구개발 예산 구조와 유럽단일연구공간법 제정을 둘러싼 불확실성(10.3) ▲유럽의회, 집행위의 호라이즌 유럽 예산 4억 유로 삭감안에 반대(10.3)